

설국의 식물

도카마치에는 식물섬유식물과 견직물을 비롯하여 오래 전에 확립된 다양한 식물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시나노 강 유역에서 자라는 저마(모시)라는 초본식물로 만든 가벼운 지리멘 직물 '에치고 지지미'가 유명합니다.

도카마치에서 가장 먼저 직물이 번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마의 식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저마 직물에 대한 기록은 약 7,200~5,400년 전인 조몬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껍게 짠 저마 직물은 '에치고 안긴'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나중에 등장한 더욱 섬세한 직물 '에치고 조후'와 함께 오늘날에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나노 강 유역 천혜의 기후조건은 이 지역 식물문화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마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 또한 직물에 이상적인 기후조건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실을 약하게 만들어 제작과정에서 실을 당기거나 꼬았을 때 쉽게 끊어져버립니다. 반면 습도가 적절한 환경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는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겨울에 직물을 생산했습니다. 거의 모든 농가 여성들은 저마나 다른 식물성 섬유를 사용해 집에서 직접 직물을 짜고, 이를 팔아가게에 보냈습니다. 또, 겨울에 작업을 하면 마사(삼 껍질에서 뽑아낸 실)나 완성된 천을 눈 위에 펼쳐 양생하는 '유키자라시'라고 불리는 처리를 하여 누런 빛을 빼내 흰색을 더욱 희게 하고, 염색을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카마치의 가내공업에서 생산된 에치고 지지미와 에치고 조후는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매상들은 니가타의 산간지역에서 생산된 직물을 교토, 오사카, 에도(현재의 도쿄)로 출하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습니다. 에치고 지지미는 막부 관리들의 의복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9 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견직물을 선호하게 되면서 저마 직물의 수요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직물업자들은 견직물 생산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지만, 견직물은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물 제작은 개인의 가정에서 벗어나 집중형 작업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직물 산지에서는 장인이 특정 공정에만 특화되어 있는 반면, 도카마치에서는 현재도 많은 장인이 전체 공정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도카마치의 숙련된 장인들은 아카시 지지미와 같은 얇고 씨실이 튼튼하게 꼬여 있는 여름용 견직물도 개발했습니다. 이 직물은 습한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카마치의 직물 장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기법과 무늬를 바탕으로 우아한 기모노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쌓아온 기술이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될 수 있도록 현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용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